

가족기능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 제작

정 성 란*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문항제작을 위한 설계 |
| II. 문헌 연구 | V. 문항제작 |
| 1. 가족기능평가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고찰 | VI. 전문가 검토 |
| 2. 가족평가의 개념 및 목적 | VII. 결론 및 제언 |
| 3. 가족평가 도구 | 참고 문헌 |
| III. 가족기능의 개념 정의 | Abstract |

I. 서론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가족기능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제작에 있으므로, 먼저 척도 개발을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옥경(2001)은 1단계(개념정리→문항개발→자료수집→자료분석→예비척도), 2단계(자료수집→1차분석-탐색적 요인분석), 3단계(2차분석-확인적 요인분석 및 변별성 분석)의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를 개발했다. 김은영(2001)은 개방식 질문지를 통한 자기 보고식 경험자료 수집→경험자료의 내용분석→검사 문항제작→문항분석→요인분석을 통한 구성개념 탐색→최종검사 문항제작→개발 검사의 타당화 검증의 과정을 통해 진로탐색장애검사를 개발했다. 또 박주희와 이은혜(2001)는 검사문항의 제작(1차, 2차 예비조사)→문항 양호도 분석→문항 타당도 분석→신뢰도 분석의 과정을 통해 또래 유능성 척도를 개발했다. 김용준과 박세환(1998)은 개념의 구체화→측정문항의 개발→사전 조사→측정도구의 정화→본 조사→신뢰성 검사→타당성 검사→측정도구의 개발의 과정을 거쳐

*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특별연구원 · 제주대학교 강사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개발했다. 서진숙(1998)은 문헌연구를 통한 기존의 특정도구에 대한 분석→예비 설문지조사 실시 및 분석→문항제작→예비검사 실시→문항선정→본 검사 실시→요인분석 및 문항 분석의 과정을 거쳐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했다. 장화정(1998)은 연구대상 선정→문항수집(선행연구 고찰)→문항선정 및 제작→예비조사→자료분석(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의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 평가 척도를 개발했다. 그리고 신기명(1990)은 예비 질문지 구성 및 예비검사 실시,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개발→신뢰도 분석→타당성 분석의 절차를 거쳐 학습된 무력감 진단 척도를 개발했다.

上述한 척도 개발의 절차 및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하나의 척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문헌연구(선행연구 고찰 및 기존의 도구 검토)→측정 영역에 대한 개념 정의→문항 제작→예비조사→문항분석,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도구의 세련화→신뢰도와 타당도의 평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기능 평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전체 절차와 과정들 중에서, 특히 문항제작까지의 과정을 밝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 가족기능 평가 척도개발을 위한 문항제작을 하고자 한다. ① 문헌연구, ② 가족기능의 개념 정의, ③ 문항제작을 위한 설계, ④ 문항제작, ⑤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검토의 과정.

II. 문헌 연구

1. 가족기능평가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고찰

급격히 변해 가는 현대 사회에서 건강하게 기능하는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족체계 이론을 토대로 가족의 기능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왔고, 가족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가족의 역동성과 가족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요구는 가족사정 모델의 개발로 이어졌다(김수연, 1998). Ackerman과 Behrons는 가족을 개인의 정신건강에 장애를 주거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힘을 가진 인격의 요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족을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본다(권수자와 이길자, 1998).

1980년대 이후 가족학 분야의 이론적 발전에 따라, 가족학의 다양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은 가족원들의 개인적 발달과 끊임없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들을 정확히 기술하고 평가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개념과 측정에서 일치를 이루는 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계속 주장하여왔다(정현숙, 2001 a; Kluwer, 2000).

가족이 개인의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가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 치료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쉽게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하며 외국에서는 여러 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도구를 도입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도구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여 한국 가족의 특성에 적합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최지호, 신호철, 최현림, 김병성 및 원장원, 2002; 2000). 즉 외국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에서 번역하여 사용해 온 가족기능 평가도구들은 우리나라 가족에 적용하였을 때 신뢰도나 타당도에 문제가 있었다(최지호 등, 2002; 양옥경, 2001; 최희진과 유영주, 1999; 정수경, 1993; 김수연, 1998).

가족기능 척도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1970년대)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가족기능에 대한 서로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가족기능 척도를 새롭게 개발하려는 연구(Bloom, 1985; 최희진과 유영주, 1999; 최지호 등, 2000)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가족기능 척도들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및 실용성 여부에 관한 연구(김수연, 1998; Harvey S., Paul S., & Gill S., 2000; Ivan W., Christine E., Gabor I., Duane S., & Nathan B., 2000; Sigafos & Reiss, 1985)도 많다.

'가족기능' 척도는 가족환경, 가족건강, 가족관계, 가족평가, 가족복지, 가족적응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최희진과 유영주, 1999). 국내에서도 최근 가족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건강성 척도(어은주와 유영주, 1995; 권수자와 이길자, 1998)와 가족관계 측정 도구(양옥경,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정현숙, 2001 b) 등이 개발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신뢰도나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형 가족기능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혹은 외국에서 개발된 다양한 척도들의 국내 적용 여부에 관한 타당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최희진과 유영주, 1999), 무엇보다 기존 연구들 사이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가족 기능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김수연, 1998; 김형준, 정광은, 권혁중, 강희철 및 윤방부, 2000; 전귀연, 1993; 김연지, 1994; 홍성호, 박옥기, 임종명, 박경준 및 정종승, 1994; 장요섭, 조현구, 조경희, 김종성 및 윤방부, 1994; 김주연, 1997; 김수연과 김득성, 1997 a, b; 최운선, 조금주, 이병환, 이영미 및 홍명호, 1997)이 FACES(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 · III · IV를 사용하여 연구하고 있다. FACES는 순환모델에 근거한 것으로, 가족기능을 응집성과 적응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척도이다. 그 외, 김은영 (1990)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족기능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FFFS(Feetham Family Functioning Scale)를 사용하여 가족기능도를 측정하였으며, 김응수, 김광석, 권혁중 및 윤방부 (2000)는 Family APGAR(가족기능도 지수: Adaptation Partnership Growth Affection Resolve)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가족기능을 평가하였다. 최지호 등(2000; 2002)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Family APGAR 및 FACES III 척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면서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최희진과 유영주(1999)는 Tavitian, Lubiner, Green, Grebstein 및 Velicer의 가족기능도 척도(FFS: Family Functioning Scale)에 기초하여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족기능 평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외국의 척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에 있어서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 척도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족기능의 용어 혹은 개념 정의나 주 모델로 삼은 이론적 토대와 그 측정도구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

확고한 이론에 기반을 둔 측정도구는 다루는 개념들에 대한 과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가족상담이나 치료 분야에서는 실용적인 자료로서 유용성을 증가시켜 준다(Schouten, 1994)고 한다. 특히 McMaster 모델은 30년 이상에 걸쳐 발전되어 온 가족기능 평가와 치료에 대한 포괄적인 모델로서, 다양한 장면에서 가족기능을 평가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접근일 뿐만 아니라(Ivan W. et al., 2000), 가족기능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 뛰어난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수경, 1993; 김유숙, 전영주 및 김수연, 2003). McMaster 모델을 활용한 국내 연구로는 정수경(1993)의 정신분열증 환자의 질병기간에 따른 가족기능의 효과성 연구에서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로서 McMaster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한 FAD 척도를 사용한 연구, 김정은과 김정옥(1998)이 가족기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McMaster의 가족기능모형(The McMaster Model of Family & Organization Assessment Device, FOAD)을 제석봉(1996)이 번역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연구, 그리고 양옥경(2001)이 가족관계 측정 도구를 개발하면서 여러 측정도구 중의 하나로서 McMaster의 FOAD를 참고로 한 연구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면에서 가족기능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이고도 뛰어난 증거들을 제공해주는 McMaster 모델의 한국형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과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가족기능 평가를 위한 문항을 제작해보고자 한다.

2. 가족평가의 개념 및 목적

대다수 정신건강 관련자들은 개인을 진단·평가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집단으로서 가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게 느낀다. 이미 각자가 복잡한 심리 역동적 존재인 개인들의 합인 가족의 상호작용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전문가와 내담자 가족이 바라보는 가족문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가족원간에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의 기능은 약물중독, 우울증, PTSD 등 대다수 정신 병리적 증상과 관련되어 있다. 개인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상담에서도 평가는 증상의 발발 및 유지에 기여하는 가족의 역동을 사정하고 어떤 개입을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간이 된다. 사정을 얼마나 정확히 했는가에 따라 치료적, 교육적, 정책적 함의가 달라지므로,

‘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하겠다. 특히 오늘날 가족상담이 보다 시간 제한적인 단기 처치와 증거중심으로 가는 추세 속에서 높은 수준의 사정은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김유숙 등, 2003).

체계이론이 가족학에 도입된 이래 많은 학자들은 가족의 역동성을 다루고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족기능을 일차원적인 속성으로 설명하던 입장과는 달리 다양한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족의 복합적인 기능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건강한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기능을査定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다(김수연과 김득성, 1997 b).

Laufer는 넓은 의미에서 평가란 현재 상태가 어떤지(여기 그리고 지금의 평가), 어떻게 될지(미래 지향적인 평가) 그리고 어떠한지(규범적 평가)를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효과적인 가족치료를 위해서 치료자와 가족은 공동으로 가족평가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가능한 한 정확하게 가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 Germain과 Gitterman은 가족평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할 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혜숙, 2003; 옥경희 역, 1995).

가족평가(Family Evaluation)는 가족을 사정하고 진단하며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로,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족내부 및 외부체계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하여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계획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내담자 가족문제의 본질과 가족체계와 외부체계의 상호작용, 문제해결을 위한 내담자 가족의 이용 가능한 자원, 문제해결에 대한 내담자 가족의 동기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조홍식 외, 1997. 재인용). 즉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족을 평가하는데, 가족평가를 이용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으려면 가족문제, 가족체계, 가족환경, 가족생활주기의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옥경희 역, 1995).

다시 말해, 가족평가는 가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으로, 상담과정의 특정시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초기사정은 개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가족과의 일상적이고 가벼운 대화에서 사정작업이 시작된다.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터뷰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가족 간의 친밀감과 신뢰감(rapport)이다. 또 내담자의 이름, 연령 등을 확인하고 가족과 개인의 발달단계 및 관련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강점과 자원도 탐색한다. 개입과정에서는 가족상호작용에서 추론되는 체계의 규칙과 경계에 대해 토의하며 가족성원의 의사소통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가족의 쟁점에 대한 가족 성원의 해석적 틀에 대한 사정에 근거해 적절한 개입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직면되는 문제들이 생기면 개입계획을 수정하기도 한다. 종결단계에서는 내담자 가족의 정서적 반응을 확인하고 변화된 가족관계 유형을 확인하며 재사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종결단계의 사정은 상담의 효과를 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추후상담의 계획도 세울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치료와 사정은 한 동전의 앞 뒤 면과 같다. 사정은 가족구성원을 위한 치료가 될 수 있고 치료의 중재는 진단에 유용하다. 사정-중재라는 사이클은 치료의 과정에서 계속 반복된다(김유숙 등, 2003).

Tiesel에 의하면 가장 이상적인 가족 평가 방법은 가족맥락 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즉 가족평가도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전문가의 지식권력에 의해, 또는 가치가 내재된 여러 가지 맥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Becvar와 Becvar는 최근 사회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반영하여 전문가 관점과 내담자 관점을 모두 존중하는 체계적 분석/다차원적 평가를 제안했다(김유숙 등, 2003).

〈표 1〉 전문가와 내담자 중심의 체계적/다차원적 평가

<p>I. 내담자 체계의 기술</p> <p>A. 이름, 연령, 가족과 개인의 발달단계 및 관련정보에 대한 이야기</p> <p>B. 가족성원과 가족체계의 강점과 자원</p> <p>C. 가계도 : 내담자 가족이 추론하는 경향/추세를 토의한다.</p> <p>II. 내담자 맥락의 기술</p> <p>A. 상호작용 유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상호작용에서 추론되는 체계의 규칙과 경계에 대해 토의한다. 2. 가족성원의 해석적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3. 의사소통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p>B. 관여된 다른 체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에 오게 된 방식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이야기한다. 2. 법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3. 내담자 체계의 가장 큰 관계망을 이야기한다. <p>C. 생태지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담자 체계에 관여된 다른 체계를 포함한다. 2. 생태지도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향성에 대해 토의한다. 	<p>III. 현재 문제에 대한 기술</p> <p>A. 각 가족성원이 정의하는 문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음 상담을 요청한 가족성원이 보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2. 첫 면접상담에서 각 가족성원이 보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3. 다른 가족원의 문제 기술에 대한 가족성원들의 반응을 이야기한다. <p>B. 시도했던 해결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가 발생했을 때 IP에 대한 가족성원들의 반응을 이야기한다. 2. 전문가 도움을 구했던 다른 시도를 이야기한다. 3. 상담에 오게 된 결정에 관한 내담자의 이야기를 한다. <p>C. 현재 문제의 논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가족성원의 맥락에서 현재 문제가 “말이 되 는(들어맞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2. 새로운 맥락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유형에 대해 이야기한다. <p>IV. 분석과정의 반영</p> <p>A. 과정의 단계마다 당신이 내담자에게 하는 이야기를 기술한다.</p> <p>B. 사건의 전개에 대한 당신의 영향에 대해 토의한다.</p> <p>C.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를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 토의한다.</p>
---	---

<p>V. 목표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내담자가 바라는 방식으로 일이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내담자 견해를 이야기한다. B. 당신과 내담자의 관점에서 내담자의 욕구에 좌절하고 가능한 자원에 대해 이야기한다. C. 목표 선택에 대한 당신의 영향에 대해 토의한다. <p>VI. 개입 실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현재 문제가 더 이상 논리적이지 않으므로 희망하는 결과에 맞는 새로운 맥락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B. 목표달성을 위한 특정 과제나 개입과 관련하여 내담자와의 계약과정을 이야기한다. C. 개입과정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그 영향에 대해 토의한다. 	<p>VI.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개입이 실행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토의한다. B. 과정에서 피드백의 영향에 대해 토의한다. C. 성공/실패에 대해 당신과 내담자가 스스로에게 한 이야기에 대해 토의한다. <p>VII. 전체적인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상담에 대한 당신 분야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B. 시간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C. 선택된 개입접근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D. 상담자/내담자의 특성(성별, 계층, 연령, 문화 등)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E. 가치관과 윤리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F. 전체 사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야기를 한다.
---	--

3. 가족평가 도구

가족을 평가하는 도구는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도구에 따라 어떤 것은 사용이 단순한 편이나 어떤 것은 복잡하며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다. 도구를 사용한 가족사정 전략은 주로 가족성원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며 기능하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성격검사나 DSM-IV(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혹은 로르샤하 검사, 주제통각검사, MMPI(다면적 인성검사), MBTI와 같은 심리검사 도구도 가족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김유숙 등, 2003).

Adele M. Holman은 가족평가의 기본방법을 면담, 직접관찰, 설문지 사용의 세 가지로 제시했다. 면담은 상담자가 자료수집과 가족을 도우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이상의 가족원과 만나는 것이며 생태도, 가계도, 가족조각 등을 면담과정 중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직접관찰은 가족성원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집단으로서의 가족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 살피는데 목적이 있으며, 상담자가 상담실이나 가정에서 가족을 관찰하는 것이다. 설문지 사용은 필수적인 가족기능과 환경적·물리적·사회적·정서적 기능의 평가를 돕는 것으로, 가족을 전반적으로 살피게 하고 가족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옥경희 역, 1995).

김유숙(1998)은 가족평가 방법을 가족생활주기에 의한 가족사정과 평가도구에 의한 가족사정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가족치료자는 면담이나 평가도구를 통하여 가족을 평가하기에 앞서,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것이 가족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고 한다. 가족생활주기

는 한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가족도 변화하는 생활주기가 있다고 보며 지금 가족이 어떤 생활주기에 처해있느냐에 따라 그 가족의 발달과업과 위기가 다르며 가족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가족생활주기는 Hill과 Duvall, Carter와 McGoldrick, Runsum 등의 여러 학자가 각각 다른 단계를 가진 생활주기를 제시했다. 평가도구에 의한 가족사정은 맥매스터 모델, 순환모델, 비버즈 모델을 들어 설명하면서, 치료자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자신이 사용하기 쉬운 모델을 한 가지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유숙 등(2003)은 가족평가 방법을 질적 평가방법과 양적 평가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질적 가족평가 도구에는 면접과 행동관찰, 투사적 기법, 가족화, 가족조각이 포함된다. 그리고 척도나 표준화된 심리검사들이 양적인 평가 도구들이다. 양적 가족평가 도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가족변인은, 가족관계, 결혼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적응 및 건강성, 가족문제를 들 수 있다.

가족기능 평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여러 가지 가족관련 측정도구들 중에서도 특히 1) 가족기능 평가 도구 2) 맥매스터 모델을 중심으로 서술해보겠다.

1) 가족기능 평가 도구

가족기능을 개념화하고 평가하는 모델은 특히 가족화 연구분야와 가족치료 임상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임상 분야에서 가족査定 모델은 가족 자신의 내부자 관점과 임상가의 외부자 관점을 통해 역기능적인 가족의 역동성을 포착하여 치료에 대한 진단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가족 이론 분야에서는 이론적 모델을 통해 이론을 정립하고 연구방법을 개발하며 나아가 실제 치료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교량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1970년 후반부터 가족査定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모델이 개발되어 왔다(김수연과 김득성, 1997 a). 그러나 몇몇 가족기능 모델은 실제로 가족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척도의 문항수가 100문항을 넘어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점수를 부호화하는 방식이나 해석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누적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김수연과 김득성, 1997 b).

가족기능 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지호 등(2000; 2002)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Family APGAR, FACES III 척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면서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때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에 들어간 항목은 지지(supportiveness), 소외(alienation), 친밀도(closeness), 역할(roles), 사회성(sociality), 권위(authority), 갈등(conflict)의 7개 척도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최희진과 유영주 (1999)는 Tavitian, Lubiner, Green, Grebstein, Velicer의 가족기능도 척도 (FFS: Family Functioning Scale)에 기초하여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FFS의 5개 요인은 긍정적인 가족 정서(positive family affect), 가족 의사소통(family communication), 가족 갈등(family conflicts), 가족 근심(family worries), 가족 의식/지원(family ritual/supports)이며, 5개 요인구조의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7점 리커르트 척도로 되어 있다.

Harvey S. et al., (2000)은 가족 기능에 대한 과정 모델에 기초한 FAM(Family Assessment Measure)을 활용하여 일곱 개의 주요 영역에 따라 가족을 평가하는 개념적 참조체계를 기술했다. 그 영역들은: 과업 달성(task accomplishment), 역할 수행(role performance), 의사소통(communication), 정서적 표현(affective expression), 관여(involve), 통제(control), 가치와 규준(values and norms)이다. FAM은 세 가지 수준에서 이러한 영역들을 측정하는데 그것은: 전체 가족 체계(whole family system - 일반 척도, 50항목), 다양한 이중 관계들(various dyadic relationships - 이중 척도, 42항목), 그리고 개인적 기능(individual functioning - 자기 평가 척도, 42항목)이다. 일반 척도에서는 사회적 바람직함과 방어적인 반응 유형들을 측정하고, FAM의 개요판은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AM(Family Assessment Measure)은 임상 장면과 비 임상 장면 모두에서 그 효과가 측정되었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결국 FAM은 가족 기능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며 가족 기능의 정보에 대한 풍부한 근거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S. Fleck에 의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 요인들이 가족의 기능에 중요한 것들이라고 한다(김혜숙, 2003). ① 부모의 성격, 부부관계의 특징, 부모로서 역할 보완성,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 같은 부모들의 권력사용 방법에 관한 것. ② 가족들의 경계에 대한 것으로 자아경계, 세대간의 경계, 가족과 사회와의 경계를 말함. ③ 가족들 개인간의 친밀성, 감정에 대한 인내성, 가족들의 상호 감정적인 정서 영역. ④ 가족들이 서로 반응하는 반응정도, 가족들의 말과 행동의 일치성 정도, 가족들의 의사소통 정도. ⑤ 가족이 가족들을 양육하는 것, 자녀와 부모와의 분리방법,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 가족들의 여가활동,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 과제와 목표수행들에 관한 것.

그리고 Goldenberg와 Goldenberg(1990)는 가족기능을 사정하는 대표적인 모델들로 Circumplex Model과 Beavers Systems Model, 그리고 McMaster Model의 세 가지 모델을 기술하여 그 특성을 비교한 바 있다. 그들은 Circumplex Model은 가족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모델로, Beavers Systems Model은 가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로 그리고 McMaster Model은 가족의 대응기술을 사정하기 위한 모델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McMaster 가족 기능 모델은 여러 측정 기법들 중에서도 가장 세심하게 고안된 기법이라고 한다.

다음은 가족 기능도 관련 척도들을 정리한 것이다(어은주와 유영주, 1995; 최희진과 유영주, 1999).

〈표 2〉 가족 기능도 관련 척도

척도명	제작자 (제작년도)
1. Family Functioning Index	Pless & Satterwhile(1973)
2. Family Evaluation Scale	Lewis, Beavers, Gosset & Phillips(1976)
3. Family Strength Inventory	Stinnett & Sauer(1977)
4. Family Life Questionnaire	Guernsey(1977)
5. Family APGAR Index	Smilkstein(1978)
6. Family Environment Scale	Moos & Moos(1981)
7. Feetham Family Functioning Survey	Feetham(1982)
8. Family Assessment Measure	Skinner, et al.(1983)
9.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Epstein, Baldwin & Bishop(1983)
10. Family Concept test	Van Der Veen(1984)
11. Family Responsibility Index	Bjorkquist(1984)
12.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Olson, Porter & Lavee(1985)
13. Family-of-origin	Hovestadt, et al.(1985)
14. Family Strength Scale	Olson, Larsen & McCubbin(1985)
15. Family Functioning in Adolescence Questionnaire	Roelofse & Middleton(1985)
16. Self-Report Family Instrument	Beavers, Hampson & Hulgus(1985)
17. Family Functioning Scale	Bloom(1985)
18. 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 Scale	Schumm, Jurich & Bollman(1986)
19. Family Health Scale	Kinston, Loader & Miller(1987)
20. Family Functioning Scale	Tavitian, Green, Lubiner, Grebstein & Velicer(1987)
21. Family Awareness Scale	Kolevzon & Green(1987)
22.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McCubbin & Cocau(1987)
23. Family Hardiness Scale	McCubbin & Thompson(1987)
24.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ion Scales	Antonovsky and Sourani(1988)
25. Family Assessment Scale	Fristad(1988)
26. Family Adaption Scale	Sourani & Antonovsky(1988)
27. Family Well-being Assessment	Caldwell(1988)
28. Family System Functioning	Doane, Hill, Kaslow & Quilin(1988)
29. Georgia Family Q-sort	Wampler & Halverson(1989)
30.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	McCubbin, Olson, Larsen(1991)
31. Index of Family Relations	Hudson(1992)
32. 가족 건강성 척도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기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도구들 중에서, ENRICH, Beavers 체계모델, 가족환경모델, 순환모델의 순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① ENRICH

ENRICH(Evaluating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Happiness)는 PREPARE와 더불어 Olson, Fournier 및 Druckman이 1981년에 개발한 부부와 커플관계 사정도구이다. ENRICH는 기혼부부용이고, PREPARE는 혼전 커플용으로 부부와 커플이 자신과 파트너간의 관계 영역에 대해 부부 자신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는 ENRICH

KOREA 가정사역 훈련원 나희수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검사사용 자격 워크숍을 마쳐야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채점 또한 ENRICH KOREA에서 이루어지며, 자가 채점은 불가능하다. 척도는 총 1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하위영역이 있다. 11개 하위영역은 결혼만족도, 성격문제, 의사소통, 갈등해결, 재정관리, 여가활동, 성관계, 자녀/양육, 가족/친구, 역할관계, 종교적 신앙이다.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이상이지만, 한국에서의 규준화 작업 및 신뢰도와 타당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김유숙 등, 2003).

ENRICH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 상담을 받기 위해 온 부부에게 커플관계에 대한 진단적 정보를 제공한다. 즉 커플관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일목요연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 강점영역과 잠재적 성장 필요영역을 알게 하여 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줄 수 있다. 부부에게서 보편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영역들은 다음 표와 같이 크게 네 개로 나뉘어질 수 있다(김유숙 등, 2003).

〈표 3〉 ENRICH의 관계영역

1. 성격특성의 문제	자기표현 회피성	자신감 배우자 지배성
2. 개인 내면의 문제	이상주의적 왜곡 종교적 신앙 결혼기대도	성격문제 여가활동 결혼만족도
3. 대인관계 문제	의사소통 자녀양육 역할관계	갈등해결 친밀감 스킨십/성관계
4. 외적인 문제	근원가족 재정관리	가족/친구

② Beavers 체계모델

Beavers 체계모델은 Beavers와 Trimmerlawn 정신의학 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이론적으로 일반체계이론과 정신의학에 바탕을 두고 25년간 건강한 가족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되었다. Beavers 체계모델은 유능성(competence)과 유형(style)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개념을 통해 가족기능에 대한 개념적인 지도(concept map)를 얻을 수 있다. 이 모델의 기본가정은, 가족 체계론적 시각에서 볼 때 가족기능은 증상이나 유형론(typology)보다 우선이라는 것, 가족 유능성은 범주적인 유형화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연속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무한적인 개념이라는 것, 가족의 유능성과 유형 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 검사(Self-Report Family Inventory : SFI) 척도로서 1985년 학

술지에 SFI가 소개된 이후 1990년에는 개정판 SFI II가 개발되었다. SFI II는 186명의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하고 유능한 가족을 나타낸다(김유숙 등, 2003).

〈표 4〉 Beavers 체계모델의 주요 차원

1. 가족 유능성	가족구조 / 가족신화 목표지향적인 협상 자율성 / 가족 정서 전반적인 가족 건강상태 / 병리상태
2. 가족유형	원심적 상호작용 구심적 상호작용

③ 가족환경모델

최초로 개발된 가족사정척도는 스탠포드 대학의 Moos가 개발한 가족환경척도이다. 이 모델은 사회적 분위기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가족환경은 가족행동을 규제하고 주도해 나간다는 두 가지 전제 하에 개발되었다. Moos는 1,125개 정상가족과 문제를 가진 500가족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가족환경 모델은 가족성원 간에 가족환경을 비교할 수 있다. 한 가족이라도 가족환경을 지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가족환경척도는 개인과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족환경은 관계영역, 개인적 성장영역, 체계유지영역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진위응답방식의 총 2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유숙 등, 2003).

〈표 5〉 가족환경모델의 주요 차원

1. 상호관계영역	응집성 갈등	표현성
2. 개인적 성장영역	독립성 지적-문화적 지향성 활동적-오락적 지향성 도덕적-종교적 강조	성취지향성
3. 체계유지영역	조직	통제

④ 순환모델

가족기능을 개념화하여 평가하는 대표적인 모델 중의 하나가 체계이론을 근간으로 한 순환모델이

다. 순환모델에서 응집, 적응 및 의사소통은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시킨 세 차원이다(김수연과 김득성, 1997 a). 순환모델의 첫 번째 차원인 응집성은 가족기능중 애정과 정서에 관련된 기능으로서 가족 간의 친밀감, 거리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개념이다(김수연, 1998). 가족응집성은 가족의 역동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조망한 관계요인으로, 가족 개개인보다는 가족 전체의 결속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된다(양옥경, 2001). 다시 말해 응집은 외적으로는 가족 경계선의 침투성과 내적으로는 가족 간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응집의 수준은 응집이 지나치게 낮은 유리된 가족, 적당히 낮게 분리된 가족, 적당히 높게 연결된 가족, 응집이 지나쳐 매몰된 가족으로 구분되어 진다. 응집이 분리나 유리 수준에 있는 가족은 독립과 연결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가족 기능이 원활하고 개인의 발전도 최적의 수준을 이루게 되며, 상황적 스트레스와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김수연과 김득성, 1997 a).

두 번째 차원은 적응성으로 안정지향과정(morphostasis)과 변화지향과정(morphogenesis)에서의 변화의 양을 말한다(김유숙 등, 2003). 즉 가족 적응성이란 가족이 당면하는 상황적·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융통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스타일, 지도력 유형, 가족구성원들간의 타협하는 능력, 역할관계, 역할분담, 가족규칙의 명시성 및 융통성이 포함된 것으로(양옥경, 2001), 지도력, 역할관계 및 관계규칙에서의 변화의 양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수연, 1998). 적응은 변화능력의 정도에 따라 적응이 지나치게 낮은 경직된 가족, 적당히 낮은 구조적인 가족, 적당히 높은 융통적인 가족, 적응이 지나치게 높은 혼돈된 가족의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즉 적응이 매우 낮거나 높은 경직된 가족이나 혼돈된 가족은 역기능적이고, 적응이 적당한 구조적 가족이나 융통적인 가족일 때 가족의 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김수연과 김득성, 1997 a).

순환모델의 세 번째 차원은 의사소통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란 응집과 적응이 균형적으로 가족체계를 움직이게 하며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응집과 적응의 균형적인 수준으로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불만족스러운 관계로 이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Olson 등은 의사소통을 촉매차원으로 다루었다(김수연과 김득성, 1997 a).

순환모델을査定하는 척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적 시각을 보는 자기 보고식 척도인 FACES와 외부 관찰자 척도인 임상평가척도(Clinical Rating Scale: CRS)가 있다. 자기 보고식 척도는 FACES 시리즈로 계속 개발되어 왔다(김유숙 등, 2003). FACES는 문장해독이 가능한 자녀와 부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용 척도이며 5점 리커트 응답 방식의 척도이다. 1979년 최초로 개발된 FACES I은 1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리커트 응답방식으로 극단 수준과 적절한 수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FACES II는 1982년 50개 문항으로 개정되었고, 응집 16문항, 적응 14문항의 30문항으로 압축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FACES II의 결합인 응집과 적응의 상관을 없애기 위해

미국 전역을 표집 대상으로 하여 수정·보완한 척도가 FACES III이다. FACES III는 모두 20문항으로 응집 10문항, 적응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의 척도에 대한 많은 비판에 따라 극단 범주의 조작화가 가능하며 곡선성을 나타내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향상된 척도가 FACES IV이다(김수연과 김득성, 1997 a; 김수연, 1998). 다음의 표는 FACES 척도의 비교이다(김유숙 등, 2003).

〈표 6〉 FACES 척도의 비교

척도(개발연도)	문항수	측정범위(응답형식)	비고
FACES I	111문항	적절한 수준, 양극단 수준 (4점 리커트 척도)	응집성과 적응성의 정의가 현재와 다름 (응집성에서 자율성 개념이 포함)
FACES II	50문항 (압축판 30문항)	극도로 과소한 수준, 적절한 수준 (5점 리커트 척도)	목적: 보다 간편하고 짧은 척도 개발,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쉬운 질문 구성
FACES III	20문항	극도로 과소한 수준, 적절한 수준 (5점 리커트 척도)	목적: 임상적 활용 가족체계에 대한 지각, 이상적인 가족체계
FACES IV	40문항	극도로 과소한 수준, 극도로 과다한 수준 (5점 리커트 척도)	목적: 순환모델의 양극단 측정

그러나, 한편으로는 순환모델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판 중의 하나가 순환모델의 곡선성 입증의 실패이다. 즉 과다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절한 응집과 적응을 지닌 가족이 건강한 기능을 보인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아울러 그 원인이 자기 보고식 척도인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 척도(FACES)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FACES는 간단하고 측정이 용이한 장점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척도가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순환모델의 곡선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으며, 응집과 적응의 과다한 차원(매물, 혼돈)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김수연과 김득성, 1997 a; 김수연, 1998).

2) McMaster 모델

McMaster 모델은 30년 이상에 걸쳐 발전되어 온 가족기능 평가와 치료에 대한 포괄적인 모델로서, 다양한 장면에서 가족기능을 평가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접근일 뿐만 아니라(Ivan W. et al., 2000), 가족기능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 뛰어난 증거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수

경, 1993; 김유숙 등, 2003). 또 많은 가족치료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었고 쉽게 교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판별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가족의 문제 영역을 보다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정수경, 1993).

가족기능을 사정하는 기준이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적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가족 사정과 치료를 수행할 근거 틀은 아직까지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을 치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적 틀에 대하여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1) 가족 기능을 이해하는데 토대가 되는 모델과 2) 그들의 자료를 이끌어줄 모델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정수경, 1993). 이러한 견지에서 Epstein과 Bishop(1991)은 가족기능에 관한 McMaster 모델이 가족 기능을 사정하고 진단하는데 개념적인 근거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델은 가족의 현재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사정된다.

- 1) 기본적인 과업 영역 : 가족은 의식중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 2) 발달과업 영역 : 가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로 생기는 문제들(예컨대, 첫 임신이나 막내 자녀의 출가 등)을 어떻게 다루는가
- 3) 위험한 과업 영역 : 가족은 질병이나 사고, 수입의 상실, 직장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상의 세 가지 과업 영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가족은 임상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가족이 이러한 과업들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McMaster 모델에서는 가족 기능의 하위 차원들을 조사하며, 가족 행동을 개념화하기 위한 기초로서 어떤 하나의 차원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가족과 같이 복잡한 실체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차원들을 사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각 차원에서 한 가족은 가장 비효과적인 기능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능까지의 범주에 걸쳐 있을 수 있다.

Ivan W. et al. (2000)은 가족 기능과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McMaster 접근의 주요 영역들을 제시하면서 그 적용을 평가했다. McMaster 모델의 기본 가정은 가족의 모든 부분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가족의 한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 체계들과 분리되어서 이해될 수 없으며, 가족 기능은 단순히 각 개인 가족 구성원이나 하위체계에 대한 이해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McMaster 모델이 가족 기능의 모든 측면들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문제시되는 가족들과 관련해 중요한 차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가족은 각 차원들에 대한 고려와 그 자체의 기능에 대한 효율성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가족의 구조와 조직 그리고 교류 패턴은 가족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가족기능을 평가하는 여섯 가지 영역은: 문제-해결(problem-solv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역할(roles), 정서적 반응성(affective responsiveness), 정서적 관여(affective involvement), 그리고 행동 통제

(behaviour control)이다. McMaster 모델은 어느 한 영역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며, 가족을 복합적인 전체로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영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즉 McMaster 모델은 가족사정척도(The Family Assessment Device : FAD)이다. FAD척도는 크게 일곱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문제해결차원 : 가족이 효과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2) 의사소통 차원 :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서 의사소통이 모호하고 위장되어 있기보다는 개방적이고 명백하게 이루어지는가, 3) 역할 차원 : 가족 구성원들이 매일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행동들이 잘 분담되고 있는가, 4) 정서적 반응성 차원 : 가족이 주어진 자극에 따라 적절한 내용과 적절한 양의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5) 정서적 관여 차원 : 가족이 그 구성원들의 관심사와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가, 6) 행동 통제 차원 :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을 다스릴 규범과 기준들을 가지는가, 7) 가족의 일반적 기능 차원 : 가족의 건강 및 병리를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것, 즉 가족기능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차원이다(정수경, 1993; 김유숙 등, 2003). FAD 척도는 총 53문항의 원문항이 있는데, 정수경(1993)의 연구에서 예비 조사를 통해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을 제외시킨 수정단축형 34문항이 있다. 문항은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고 초점이 단순하게 잘 맞추어져 있고, 채점은 Likert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진다. FAD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정수경, 1993).

	Cronbach's alpha	
	Epstein(1983)	정수경(1993)
문제해결(PS)	.74	.68
의사소통(CM)	.75	.70
역할(RL)	.71	.78
정서적 반응성(AR)	.83	.74
정서적 관여(AI)	.78	.72
행동 통제(BC)	.72	.67
일반적 기능(GF)	.92	.68

McMaster 모델에서 가족기능을 평가하는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정수경, 1993; 김유숙 등, 2003).

① 문제해결

문제해결 차원은 가족이 효과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의 통합과 기능을 위협하는 것으로 본다. 모든 가족들은 유사한 범위 내에서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효과적인 가족은 문제를 해결하고, 비효과적인 가족은 문제에 대처하

지 못한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족은 잘 기능하지 못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적을수록 그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가족은 빨리, 쉽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대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다. 그러므로 현재의 그리고 다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노력들을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유용하다. 그런 노력들은 다음의 7단계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그 단계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인식(누가 문제를 인식하는지를 사정하는 것, 가족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인식된 문제를 누구에게 의사소통하며 그 대상은 적절한 사람인가)→ 대안적 행동(그 문제에 대한 계획으로 고려되는 것의 형태 알아보기)→ 적절한 행동 과정에 대한 결정(가족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대안들에 대해 올바른 고려를 해보았는가)→ 과업 수행(결정한 대안을 가족이 수행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 행동 검사하기(가족이 정해진 책임을 자하는지를 검사하는지의 여부)→ 행동평가하기(가족이 행한 문제해결 행동이 성공했는지를 가족이 평가하는 것). 즉 가족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면 할수록 이상의 과정들을 모두 취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과정을 모두 수행하는 가족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가족의 문제 해결 단계들이 많을수록 그 가족은 건강한 것이다.

②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가족 내에서 정보가 어떻게 교류되는가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초점은 언어적 교류에 있다. 이 정의는 물론 제한적인 것이다. 비언어적인 가족 의사소통의 측면들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연구를 목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측정하는 데에 방법론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맥매스터 모델에서는 제외되었다. 의사소통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두 요소가 기준이 된다. 의사소통이 분명한가 아니면 위장되어 있는가, 의사소통이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하는 것이다. 전자의 정보의 내용이 얼마나 분명하게 교류되는가 이고, 후자는 어떤 사람에게 대한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가를 의미한다. 이상의 구분에 따르면 네 가지 유형의 의사소통이 관찰될 수 있는데,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의 전반적인 의사소통이 네 번째 유형에 가까울수록 가족의 기능은 비효과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첫 번째 유형의 의사소통을 할수록 가족은 더 효과적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의사소통은 중간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의 명료성	
		명료함	모호함
메시지의 방향	직접적	1. 명료하고 직접적	3. 모호하고 직접적
	간접적	2. 명료하고 간접적	4. 모호하고 간접적

③ 역할

가족의 역할이란 개인이 가족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유형이라고 정의된다. 과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역할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어야 하며, 가족성원은 분배된 역할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할분담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다. 즉 적절한 수도 있고 부적절할 수도 있으며,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분담된 역할이 가족성원에게 적절하게 나누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미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족성원에게 또 다시 어떤 역할이 부담되었는지 하는 것이다. 건강한 가족일수록 가족기능이 대부분의 가족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역할의 분담과 책임도 명백하다.

④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반응성은 가족이 주어진 자극에 따라 적절한 내용과 적절한 양의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내용 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가족성원이 일상적인 정서생활에서 광범위한 느낌을 경험하고 반응하는가?

둘째, 경험되는 정서는 상황적 맥락에서 자극에 부합되는 것인가?

효과적인 정서생활을 하는 가족의 경우는 질적 또는 양적인 면에서 모두 적절한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서적 반응성이란 가족성원이 경험하는 정서를 의미한다. 반응에는 안정감과 위기감으로 구분된다. 안정감은 애정, 안정감, 즐거움과 같은 반응을 말하며, 위기감은 두려움, 비애, 분노, 우울과 같은 정서를 말한다. 적절한 수준의 정서적 반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지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건강한 가족은 적절한 강도와 지속성을 가지고 다양한 정서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역기능적인 가족은 반응하는 정서의 범주가 극도로 한정되어 있거나 반응의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항상 부적절하다.

⑤ 정서적 관여

정서적 관여란 가족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의 양과 질의 문제로 가족전체가 각 개인의 관심사, 활동, 가치관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가를 의미한다. 맥매스터 모델에서는 정서적으로 서로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관여의 부재 : 서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족성원은 서로에게 소원하거나 무관심하며 가족원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한다.

둘째, 정서가 없는 관여 : 감정이 배제된 관여로 가족성원끼리의 관여는 의무감이나 다른 가족의 통제가 필요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이 있을 때만 서로가 관여한다.

셋째, 자기 도취적 관여 :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여가 주로 자기중심적일 때 일어난다. 즉 어떤

가족성원이 다른 사람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보살피는 마음에서보다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성원과 관계하는 것이다.

넷째. 공감적 관여 : 이는 어떤 문제에 관여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바람직한 관여의 상태이다.

다섯째. 과잉 및 공생적 관여 : 이는 과잉으로 관여하고 과잉으로 보호하는 것이며, 공생적 관여라고도 한다. 즉 관여가 너무 심해서 경계가 희미해지게 되는 병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유형은 가족성원의 발달장애나 정신 분열증을 초래하는 것이다.

가족의 건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관여의 형태를 보아야 한다.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관여는 양극에 해당하는 관여의 결핍과 공생적 관여에 해당하는 형태이다.

⑥ 행동 통제

행동통제는 가족이 여러 종류의 상황에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선택하는 유형으로 정의된다. 가족들은 나름대로 가족들이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의 기준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기준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의 정도도 정하게 된다. 즉 가족성원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어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가족성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족 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고, 행동 기준의 본질과 수용 가능한 행동의 허용도에 따라 4가지의 행동통제 유형이 생기게 된다.

첫째. 엄격한 행동 통제 :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재고의 여지가 거의 없는 가족을 의미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준을 어길 수가 없다.

둘째. 융통적인 행동 통제 :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과 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준과 허용도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된다.

셋째. 방임적 행동 통제 : 기준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허용범위가 매우 넓은 가족을 말한다. 이런 가족에서는 거의 어떤 것도 가능하다.

넷째. 혼돈된 행동 통제 : 일관성 있는 유형이 없는 가족에서 발견되는 유형이다. 이는 부모들이 서로 다른 행동통제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유형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이 모델에서는 융통적인 유형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엄격한 유형, 자유방임형, 혼란형의 순으로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건강한 가족은 각각의 가족 구성원에 맞는 행동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융통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가족이다. 반대의 경우는 가족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혼란되어 있으며 설사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부적절한 경우이다.

다음의 표는 Epstein과 Bishop이 제시한 맥매스터 모델의 가족기능을 설명한 것이다(정수경,

1993; 김유숙 등, 2003).

〈표 7〉 맥매스터 모델의 가족기능

차원	중심개념	세부내용
문제해결	문제유형	도구적 / 정서적
	문제해결과정(7단계)	1. 문제인식 2. 적절한 사람에게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 3. 대안적 행동 생각하기 4. 한 가지 대안 정하기 5. 행동 6. 행동 모니터 하기 7. 행동의 성패 평가
	가장 효과적인 유형 가장 비효과적인 유형	모든 단계가 실행될 때 문제 인식 조차 할 수 없을 때
의사소통	영역	도구적, 정서적
	의사소통 유형	1. 분명하고 직접적 2. 분명하고 간접적 3. 불분명하고 직접적 4. 불분명하고 간접적
	가장 효과적인 유형 가장 비효과적인 유형	분명하고 직접적 불분명하고 간접적
역할	유형	필수적인 가족기능, 기타 가족기능
	가장 효과적인 유형 가장 비효과적인 유형	모든 필수적인 가족기능이 개인들에게 적절하며 분명하게 할당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질 때 필수적인 가족기능들이 거론되거나 분담되지 않고 그에 따른 책무를 언급하지 않을 때
정서적 반응성	영역	도구적, 정서적
	유형	안녕감, 위기감
	가장 효과적인 유형 가장 비효과적인 유형	다양한 정서가 질적/양적인 면에서 주어진 자극과맞을 때 질적/양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정서만이 있을 때
정서적 관여	유형	1. 관여가 없음 2. 감정이 배제된 관여 3. 자기도취적 관계 4. 공감적 관여 5. 과잉 관여 6. 공생적 관여
	가장 효과적인 유형 가장 비효과적인 유형	공감적 관여 공생적 관여와 관여가 없음
행동통제	상황	1. 위험한 상황 2. 심리생리적 욕구와 충동들을 표현하고 충족 시킬 때 3. 가족 내외의 대인간의 사회화 행동
	유형	1. 엄격한 2. 융통성 있는 3. 자유방임형 4. 혼란형
	가장 효과적인 유형 가장 비효과적인 유형	융통성 있는 행동통제 혼란스러운 행동통제

다음은 FAD 단축형의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과 척도 내용이다(정수경, 1993).

문제해결 14, 22, 34	의사소통 2, 10, 25, 33
역할 8, 13, 20, 27, 30	정서적 반응성 5, 11, 18, 23
정서적 관여 7, 15, 19, 21, 24, 3	행동 통제 4, 9, 17, 26, 28
일반적 기능 1, 3, 6, 12, 16, 29, 32	

※ 다음은 귀하의 가족을 나타낸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우리 가족은

1.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지 못한다.
2. 누군가가 기분이 나쁘면 왜 그런지를 안다.
3. 위기가 닥치면 서로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다.
4. 갑자기 큰 일을 맞게 되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5.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6. 슬픈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7. 자신에게 중요한 일일 때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다.
8. 집에서 할 일이 충분히 나뉘어져 있지 않다.
9. 규칙을 어겨도 그냥 지나간다.
10. 빗대서 말하기보다는 직접 솔직하게 얘기한다.
11.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
12.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나 걱정에 대해 얘기하기를 꺼린다.
13.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14. 집안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후에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얘기하곤 한다.
15.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다.
16.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다.
17.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18.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
19. 우리에게 관계 있는 일에만 서로 관여하게 된다.
20. 식구들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알아볼 시간이 별로 없다.
21.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서로에게 관심을 보인다.
22. (나쁜) 감정 문제가 나타나면 거의 풀고 지나간다.
23. 다정다감한 편은 아니다.
24. 어떤 이득이 있을 때에만 서로에게 관심을 보인다.
25. 서로에게 솔직하다.
26. 어떤 규칙이나 기준을 고집하지 않는다.
27. 어떤 일을 부탁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일러줘야 한다.
28. 집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른다.
29. 함께 있으면 잘 지내지를 못한다.
30. 가족으로서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31. 비록 좋다고 하는 것이지만 서로의 생활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
32. 서로를 믿는다.
33. 누가 해놓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말한다.
34.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가족기능 평가 척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가족기능 평가 척도의 하위영역과 신뢰도

개발자 및 연구자	연도	척도명	하위영역	문항수	신뢰도·타당도
어은주와 유영주	1995	가족건강 척도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간의 몰입 가족원의 적응 가족 가치관	34문항	Cronbach α .94 공인타당도 입증
최희진과 유영주	1999	가족기능도 척도 (FFS)	긍정적인 가족 정서 가족 의사소통 가족갈등/가족근심 가족 의식/지원	40문항	Cronbach α .86
최지호 등	2000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	지지 친밀도 사회성 갈등 소외 역할 권위	40문항	Cronbach α .55~.88(제한있음) 구성,준거타당도 검증
양옥경	2001	가족관계 측정도구	가족관계의 정서친밀 영역 인지행동 영역 소외폭력 영역	24문항	Cronbach α .93 내용,구성타당도 검증
Harvey et al.	2000	가족사정척도 (FAM):가족기능의 과정모델	과업달성 의사소통 관련 가치와 기준 역할수행 정서적 표현 통제	134문항 개요 14문항	Cronbach α .60~.80 변별,구성타당도 검증
Olson et al.	1981	ENRICH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재정관리 성관계 가족/친구 종교적 신앙 성격문제 갈등해결 여가활동 자녀/양육 역할관계	165문항	Cronbach α .68~.86 검사-재검사신뢰도 .80이상 한국에서 타당도 확인 안됨
Beavers et al.	1985	Beavers 체계모델	가족 유능성 / 가족 유형	SFI II 36문항	Cronbach α .84~.88 동시타당도 입증
Moos	1974	가족환경모델	상호관계 영역 개인적 성장영역 체계유지영역	270문항	Cronbach α .61~.78 동시,판별타당도
Olson et al.	1979	순환모델 FACES	가족 적응성 가족 응집성 의사소통	I 111문항 II 50문항 III 20문항 IV 40문항	Cronbach α .68~.81 타당도 논란
Epstein et al.	1983	맥매스터 모델	문제해결 역할 정서적 관련 가족의 일반적 기능 의사소통 정서적 반응성 행동 통제	원문항53 단축형34	Cronbach α .72~.92 판별타당도

Ⅲ. 가족기능의 개념 정의

가족기능은 가족환경, 가족건강, 가족관계, 가족적응 등의 용어로 쓰이고 있다. 즉 가족기능이란 복합적인 것으로 단순히 한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기능적인 가족은 일정한 유사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고, 가족 전문가들은 각각 다른 주제에 강조점을 두며, 다른 전문적이고도 개인적인 견해와 가치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순환모델에서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중심으로 가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족기능을 이해한다. Beavers의 체계모델에서는 가족 유능성과 가족 유형을 중심으로 가족기능을 평가하고, 가족환경모델(Moos)에서는 상호관계 영역, 개인적 성장영역, 체계유지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기능을 평가하고 이해한다. 또 Satir는 의사소통이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구체적이고 정직한 것을 중심으로 가족기능의 특성을 설명했다. 심리치료자 스테코비아크는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에 관한 비교설명에서 가족 효율성의 네 가지 요인을 가족의 생산성 및 효율성, 리더십의 패턴, 갈등의 표현, 의사소통의 명료성이라고 하면서 특히 기능적인 가족은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반힐은 건전한 가족기능의 차원을 네 가지 영역과 여덟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것은 1) 정체감 형성 ① 개별화 대 고립 ② 상호성 대 고립 2) 변화 ③ 융통성 대 경직성 ④ 안정 대 혼란 3) 정보교환 ⑤ 명료한 지각 대 모호한 또는 왜곡된 지각 ⑥ 명료한 의사소통 대 모호한 또는 왜곡된 의사소통 4) 역할 구조화 ⑦ 역할 상호성 대 모호한 역할 또는 역할갈등 ⑧ 명료한 세대간 경계 대 모호한 또는 파괴된 세대간 경계. 반힐은 개별화와 상호의존 관계를 통한 자아감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개별화(individuation)란 '개별 가족원들의 사고, 감정,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을 말한다. 이것은 '확고한 자율감, 개인적 책임감, 자아정체감과 경계' 등을 말한다. 반힐의 연구에서 이들 여덟 가지 요인들은 상호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노영주, 서동인, 원효종 역, 2003).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족은 복합적인 전체로서 이해하고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족의 기능은 다음의 여섯 가지 차원이 상호 역동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총체적이고도 효과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1) 문제해결차원 : 가족이 효과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2) 의사소통 차원 : 효과적인 기능을 위해서 의사소통이 모호하고 위장되어 있기보다는 개방적이고 명백하게 이루어지는가, 3) 역할 차원 : 가족 구성원들이 매일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행동들이 잘 분담되고 있는가, 4) 정서적 반응성 차원 : 가족이 주어진 자극에 따라 적절한 내용과 적절한 양의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5) 정서적 관여 차원 : 가족이 그 구성원들의 관심사와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가, 6) 행동 통제 차원 :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을 다스릴 규범과 기준들을 가지는가 이다. 다시 말해, 문제해결 · 의사소통 · 역할 · 정서적 반응성 · 정서적 관여 · 행동통제의 여섯 가지 차원과 그 역동성을 중심으로 가족기능을 보고자 한다.

IV. 문항제작을 위한 설계

검사 도구를 제작함에 있어 측정의 내용, 검사의 목적, 검사의 종류에 따라 제작 절차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단계를 거친다(성태제, 2002).

첫째. 특정내용을 정의하고 측정내용의 특성이나 행동을 규명한다.

둘째. 검사의 목적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셋째. 검사도구 제작을 위한 청사진을 작성한다. 검사 제작을 위한 청사진에는 검사에 필요한 이원 분류표, 검사 소요시간, 문항 수, 문항유형, 문항 난이도 수준, 지시사항, 시행절차, 채점방법 등이 포함된다. 문항 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피험자들의 연령과 검사시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검사제작을 위한 청사진에 따라 문항을 제작한다.

문항제작을 위한 설계는 방금 설명한 세 번째 단계의 검사도구 제작을 위한 청사진에 해당된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좋은 문항을 제작하기 위하여 검사 대상, 검사 소요시간, 문항 수, 문항유형, 문항 난이도 수준, 지시사항, 시행절차, 채점방법 등의 항목으로 문항제작을 위한 설계를 해보고자 한다.

한편, 문항제작을 할 때 공통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는 요소로 Gronlund는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단어, 불필요하게 복잡한 문장 구조, 모호한 문장, 너저분하게 기술된 문장, 불분명하게 제시된 그림, 혼돈스런 지시문, 인종과 성별의 편파성이 포함된 자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문항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문항의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하는 점이다. 문항 내용과 측정 목적의 일치성 여부 확인은 문항제작자가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점이다. 둘째, 문항 내용이 복합성을 지녀야 한다. 복합성이란 질문의 내용이 단순 기억에 의한 사실보다는 고등정신 기능으로서 분석, 종합, 평가 등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어야 한다. 셋째, 문항내용의 요약성을 들 수 있다. 질문이 열거된 단순 사실만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사실들을 요약하고, 일반화, 나아가 추상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넷째, 문항의 참신성이다. 이는 내용적 측면이나 형식적 측면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진부한 형태의 문항이 아니라 새로운 문항을 의미한다. 다섯째, 문항이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는 문항의 체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문이 모호하지 않으며 구체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그 외, 문항은 검사의 사용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등이 있다(성태제, 2002).

또한 예비문항을 제작하고 문항을 선정할 때는 각각의 문항이 하나의 '척도' 혹은 '검사' 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개별적인 문항도 하나의 척도 혹은 검사가 갖추어야 할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편중되지 않은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문항전집에서 전체적 성향에 대한 사전 검토 혹은 사전계획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문항의 내용들이 표현양식은 다르더라도 중복되는

문항들을 제작해야 하며, 각 문항의 난이도, 측정상황, 응답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문항의 개수를 선정해야 하며, 어떤 척도양식 및 반응양식으로 할 것인지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반응범주의 개수도 문항의 성향과 개수, 응답자의 성향, 분석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검사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예비 문항들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도 필요하다(한국심리학회, 1998).

다음의 항목들은 문항 제작을 위한 설계에 포함되는 내용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족 기능 평가 척도 문항을 제작하고자 한다.

① 검사 대상

대학생 및 성인. 이상적으로는 가족 기능을 평가할 때 전 가족 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좋지만, 연령이 너무 어린 자녀가 있거나 반대로 너무 나이가 많은 가족 성원도 있으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대학생 및 성인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여섯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본인이 속한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려면 어느 정도의 연령과 지적 수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② 검사 소요시간

30-40분 정도. 대학생 및 성인이므로 검사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본다.

③ 문항 수

67문항. 현재 FAD의 단축형인 34문항보다 많은 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추후에 예비조사, 문항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최종 선별될 계획이다.

④ 문항유형

교육평가에서 흥미, 동기, 태도, 가치, 신념 등을 측정 또는 조사할 때 사용하는 척도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는 어떤 사물에 대해 진술한 여러 개의 문장을 피검사자에게 주고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 느낌 또는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요구한 다음 모든 진술문에 대한 평정치를 합산한 값을 태도점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합평정법(綜合評定法: method of summated rating)이라고 한다. 혹은 그 비중 또는 정도(빈도, 강도)를 판단하여 보고하게 하므로 평정척도 문항(rating scale item) 또는 평정요구형 설문이라고도 한다. 진술문은 호의적인 또는 긍정적인 태도의 정도를 조금씩 달리 표현한 여러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진술문과 부정적인 진술문이 반반이 되도록 조정해야 하며 품등수는 3~7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변창진 외, 2001).

⑤ 문항 난이도 수준

대학생이나 성인의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단순 명료한 문장 표현을 통해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의 문항 난이도를 두고자 한다.

⑥ 지시사항 및 시행절차

주로 집단 장면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자리에서 모두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 검사는 여러분이 속한 가족의 기능에 관해 조사하려는 것으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어떤 병리적인 특성을 진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지의 지시문을 말하고 시행하고자 한다.

⑦ 채점방법

리커트 5점 척도로서, 긍정문은 그대로 채점하고 부정문은 반대로 채점한다. 가족 기능에 대한 전체 총점계산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효과적으로 잘되는 것이다.

V. 문항제작

평가를 실시할 때 반드시 새로 평가도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구 중에 적당한 것을 골라 사용하거나 기존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평가나 측정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되는 도구를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구 중에서 선정하거나, 일부 수정하거나, 완전히 새로 제작하는 작업은 동일한 성질의 작업이다(변창진 외, 2001).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족기능 평가 도구를 하나 선택하여, 일부 수정 및 보완하는 방향에서 문항을 제작하고자 한다.

기존의 평가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나 형식을 지적하고 수정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하며 수정방법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평가도구가 운데 적합한 것을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요령으로 평가 도구에 관한 특징을 요약, 정리하여 문서로 작성하되 수정 부분, 이유, 방법을 특별히 상세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다. 또 수정한 부분이 많지 않을 지라도 수정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면 수정, 보완한 다음 평가도구를 새로 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하고 문항분석과 신뢰도 및 타당도를 추정하여 평가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다(변창진 외, 2001).

본 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하고자 선택한 가족기능 평가도구는 맥매스터 이론 모델에 근거한 FAD(가족사정척도: The Family Assessment Device) 단축형이다. FAD 척도는 총 53문항의 원 문항이 있는데, 정수경(1993)의 연구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을 제외시킨 수정단축형 34문항이 있다. 문항은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고 초점이 단순하게 잘 맞추어져 있고, 채점은 Likert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FAD 단축형의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과 척도 내용이다(정수경, 1993).

· 문제해결 14, 22, 34

14. 집안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후에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얘기하곤 한다.
22. (나쁜) 감정 문제가 나타나면 거의 풀고 지나간다.
34.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본다.

· 의사소통 2, 10, 25, 33

2. 누군가가 기분이 나쁘면 왜 그런지를 안다.
10. 빗대서 말하기보다는 직접 솔직하게 얘기한다.
25. 서로에게 솔직하다.
33. 누가 해놓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말한다.

· 역할 8, 13, 20, 27, 30

8. 집에서 할 일이 충분히 나뉘어져 있지 않다.
13.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20. 식구들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알아볼 시간이 별로 없다.
27. 어떤 일을 부탁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일러줘야 한다.
30. 가족으로서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 정서적 반응성 5, 11, 18, 23

5.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11.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
18.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
23. 다정다감한 편은 아니다.

· 정서적 관여 7, 15, 19, 21, 24, 31

7. 자신에게 중요한 일일 때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다.

15.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다.
19. 우리에게 관계 있는 일에만 서로 관여하게 된다.
21.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서로에게 관심을 보인다.
24. 어떤 이득이 있을 때에만 서로에게 관심을 보인다.
31. 비록 좋다고 하는 것이지만 서로의 생활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

· 행동 통제 4, 9, 17, 26, 28

4. 갑자기 큰 일을 맞게 되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9. 규칙을 어겨도 그냥 지나간다.
17.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26. 어떤 규칙이나 기준을 고집하지 않는다.
28. 집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른다.

· 일반적 기능 1, 3, 6, 12, 16, 29, 32

1.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지 못한다.
3. 위기가 닥치면 서로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다.
6. 슬픈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12.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나 걱정에 대해 얘기하기를 꺼린다.
16.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다.
29. 함께 있으면 잘 지내지를 못한다.
32. 서로를 믿는다.

본 연구에서 문항을 제작하면서 수정 및 보완한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정부분

- 문항 수 : 34문항 → 67문항으로 전체 수를 늘려서 수정.
- 긍정문과 부정문을 거의 반반의 비율로 조정. 현재 FAD 단축형은 총 34문항인데, 전체 문항에서 긍정문이 10문항(2, 3, 10, 14, 16, 22, 25, 32, 33, 34)인데 반해, 부정문이 24문항(1, 4, 5, 6, 7, 8, 9, 11, 12, 13, 15, 17, 18, 19, 20, 21, 23, 24, 26, 27, 28, 29, 30, 31)으로 부정문에 훨씬 더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문과 부정문의 비율이 비슷하도록 수정하였다.
- 채점할 때 리커르트 4점 척도 → 5점 척도로 조정.

(1:전혀 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그렇다, 5:매우 그렇다)

② 수정이유

· 문항 수를 늘린 것은 가족기능 7개의 하위영역에 대한 배분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이며, 예비조사 등을 통하여 추후에 선별될 것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추가하였다.

· 긍정, 부정문을 반반씩 섞어서 제작한 이유는, 진술문이 호의적인 또는 긍정적인 태도의 정도를 조금씩 달리 표현한 여러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진술문과 부정적인 진술문이 반반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변창진 외, 2001) 때문이다.

· 리커트 평정 척도를 4점 척도에서 5점 평정 척도로 수정한 것은, 피검사자들이 응답할 때 중간 정도를 첨부함으로써 보다 쉽게 응답하게 하는 균형 있는 평정척도를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③ 수정내용

문항 내용을 수정하면서, 맥매스터 모델에서 평가하는 가족 기능의 여섯 가지 측면을 이론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수경(1993)·김유숙 등(200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수정하였다. 수정된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의 +와 -표시는 각각 긍정문과 부정문을 의미한다.

· **문제해결** 14, 22, 34 - 모두 긍정문이므로 부정문 5개와 긍정문 2개 추가. 총 10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다음은 새로 제작된 문항임).

새로운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른다.(-)

가족 성원 중의 한 명에게 문제가 생겨도, 다른 가족성원들은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 척 해버린다.(-)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닥쳤을 때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도저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다.(-)

가족 내에 어떤 갈등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서로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를 꺼린다.(-)

우리 가족에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있다.(+)

가족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차라리 그 문제를 모르는 척하거나,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 **의사소통** 2, 10, 25, 33 - 현재 모두 긍정문이므로 부정문 5개, 긍정문 1개 추가. 총 10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다음은 새로 제작된 문항임).

가족 성원에게 축하 받을 기쁜 일이 생기거나 서로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직접 말로 표현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거의 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왜 화가 났는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직접 말하지는 않는다.(-)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을 때, 다른 가족 성원을 통해(시켜서) 대신 말하게 한다.(-)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이 충분히 풀릴 때까지 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한 두 마디 정도를 하고는 그만뒀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괜히 말해서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다.(-)

· **역할** 8, 13, 20, 27, 30 - 모두 부정문이므로, 긍정문 5개 추가. 총 10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
 (다음은 새로 제작된 문항임).

가족 내에서의 역할의 분담과 책임이 명백하다.(+)
 가족 내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각 사람에게 맞도록 골고루 적절히 나누어져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책임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가족 내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 기꺼이 수용하는 편이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가족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편이다.(+)

· **정서적 반응성** 5, 11, 18, 23 - 모두 부정문이므로 긍정문 5개 추가. 총 9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
 (다음은 새로 제작된 문항임).

누군가가 감정을 표현하면 받아들여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화나는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무시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나름대로 반응해준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숨기는 일 없이 서로가 표현하고 함께 나눈다.(+)
 상대방이 표현하는 감정의 정도나 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반응해줄 수 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족끼리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한다.(+)

· **정서적 관여** 7, 15, 19, 21, 24, 31 - 모두 부정문이므로 긍정문 5개 추가. 총 11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다음은 새로 제작된 문항임).

가족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의 관심사나 일에 대해 다른 가족성원들도 관심을 보이거나 지지한다.(+)
 우리 가족은 정서적으로 서로 깊이 관여되어 있다.(+)
 우리 가족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의무감이나 통제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여한다.(+)

· **행동 통제** 4, 9, 17, 26, 28 - 모두 부정문이므로, 긍정문 5개 추가. 총 10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

(다음은 새로 제작된 문항임).

- 우리 가족은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때 그 규칙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다.(+)
- 우리 가족 내에 있는 규칙이나 행동의 한계는 적절한 수준이라서 지키는 것이 쉬운 편이다.(+)
- 야단맞거나 꾸중을 들을 때에도 그 방식이 지지적이고 교육적이라서 수긍이 가는 편이다.(+)
- 어떤 한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규칙 적용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 우리 가족 내에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그 규칙을 함께 공유하므로 목표나 과제 달성이 쉽다. (+)

· 일반적 기능 1, 3, 6, 12, 16, 29, 32

현재 일반적 기능에 해당되는 문항은 긍정문 3, 부정문 4개로 전체 7문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따로 수정하지 않았다.

다음의 표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수정하고 보완한 문항 제작 내용을 따로 표로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다.

영역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해결	14,22,34:긍정문 3문항	부정문 5개와 긍정문 2개 추가. 총 10문항으로 수정.
의사소통	2,10,25,33:긍정문 4문항	부정문 5개, 긍정문 1개 추가. 총 10문항으로 수정.
역할	8,13,20,27,30:부정문 5문항	긍정문 5개 추가. 총 10문항으로 수정.
정서적 반응성	5,11,18,23:부정문 4문항	긍정문 5개 추가. 총 9문항으로 수정.
정서적 관여	7,15,19,21,24,31:부정문 6문항	긍정문 5개 추가. 총 11문항으로 수정.
행동통제	4,9,17,26,28:부정문 5문항	긍정문 5개 추가. 총 10문항으로 수정.
일반적 기능	1,3,6,12,16,29,32 : 긍정문3문항, 부정문4문항	따로 수정하지 않음. 전체 7문항.
계	34문항	67문항

다음은 수정, 보완된 문항을 첨가한 전체 67문항의 가족기능 평가 척도 문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 문제해결

- 집안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후에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얘기하곤 한다.(+)
- (나쁜) 감정 문제가 나타나면 거의 풀고 지나간다.(+)

-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본다.(+)
- 새로운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른다.(-)
- 가족 성원 중의 한 명에게 문제가 생겨도, 다른 가족성원들은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 척 해버린다.(-)
-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닥쳤을 때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있다.(+)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도저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다.(-)
- 가족 내에 어떤 갈등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서로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를 꺼린다.(-)
- 우리 가족에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있다.(+)
- 가족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차라리 그 문제를 모르는 척 하거나,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 의사소통

- 누군가가 기분이 나쁘면 왜 그런지를 안다.(+)
- 빗대서 말하기보다는 직접 솔직하게 얘기한다.(+)
- 서로에게 솔직하다.(+)
- 누가 해놓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말한다.(+)
- 가족 성원에게 축하 받을 기쁜 일이 생기거나 서로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직접 말로 표현한다.(+)
-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거의 하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왜 화가 났는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직접 말하지는 않는다.(-)
-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을 때, 다른 가족 성원을 통해(시켜서) 대신 말하게 한다.(-)
-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이 충분히 풀릴 때까지 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한 두 마디 정도를 하고는 그만뒀다.(-)
-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괜히 말해서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다.(-)

◎ 역할

- 집에서 할 일이 충분히 나뉘어져 있지 않다.(-)
-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 식구들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알아볼 시간이 별로 없다.(-)
- 어떤 일을 부탁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일러줘야 한다.(-)
- 가족으로서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 가족 내에서의 역할의 분담과 책임이 명백하다.(+)
- 가족 내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각 사람에게 맞도록 골고루 적절히 나누어져 있다.(+)

-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책임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 가족 내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 기꺼이 수용하는 편이다.(+)
-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가족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편이다.(+)

◎ 정서적 반응성

-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
-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
- 다정다감한 편은 아니다.(-)
- 누군가가 감정을 표현하면 받아들여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화나는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무시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나름대로 반응해준다.(+)
-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숨기는 일 없이 서로가 표현하고 함께 나눈다.(+)
- 상대방이 표현하는 감정의 정도나 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반응해줄 수 있다.(+)
-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족끼리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한다.(+)

◎ 정서적 관여

- 자신에게 중요한 일일 때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다.(-)
-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다.(-)
- 우리에게 관계 있는 일에만 서로 관여하게 된다.(-)
-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서로에게 관심을 보인다.(-)
- 어떤 이득이 있을 때에만 서로에게 관심을 보인다.(-)
- 비록 좋다고 하는 것이지만 서로의 생활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
- 가족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 한 사람의 관심사나 일에 대해 다른 가족성원들도 관심을 보이거나 지지한다.(+)
- 우리 가족은 정서적으로 서로 깊이 관여되어 있다.(+)
- 우리 가족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 의무감이나 통제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여한다.(+)

◎ 행동 통제

- 갑자기 큰 일을 맞게 되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 규칙을 어겨도 그냥 지나간다.(-)

-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 어떤 규칙이나 기준을 고집하지 않는다.(-)
- 집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른다.(-)
- 우리 가족은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때 그 규칙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다.(+)
- 우리 가족 내에 있는 규칙이나 행동의 한계는 적절한 수준이라서 지키는 것이 쉬운 편이다.(+)
- 야단맞거나 꾸중을 들을 때에도 그 방식이 지지적이고 교육적이라서 수긍이 가는 편이다.(+)
- 어떤 한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규칙 적용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 우리 가족 내에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그 규칙을 함께 공유하므로 목표나 과제 달성이 쉽다. (+)

◎ 일반적 기능

-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지 못한다.(-)
- 위기가 닥치면 서로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다.(+)
- 슬픈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나 걱정어 대해 얘기하기를 꺼린다.(-)
-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다.(+)
- 함께 있으면 잘 지내지를 못한다.(-)
- 서로를 믿는다.(+)

VI. 전문가 검토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검토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상담 및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2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맥매스터 모델의 이론적 근거와 수정 전의 FAD 단축형 34문항,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한 67문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다음의 형식으로 평가를 의뢰하였다. 평정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1:전혀 아니다 2:다소 부적절하다 3:보통이다 4:다소 적절하다 5:매우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전체 67문항의 7가지 영역에 대한 문항들을 검토하면서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전체적 수준을 검토 및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영역	문제해결	의사소통	역 할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관여	행동통제	일반적 기능	평점
전문가 A	4	4	4	3	4	4	3	3.7
전문가 B	4	5	4	4	4	5	4	4.3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기능 평가 척도를 개발을 위한 문항 제작에 있으며, 문항 제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과 절차를 거쳤다. ① 문헌연구, ② 가족기능의 개념 정의, ③ 문항제작을 위한 설계, ④ 문항제작, ⑤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검토.

확고한 이론에 기반을 둔 측정도구는 다루는 개념들에 대한 과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가족 상담이나 치료 분야에서는 실용적인 자료로서 유용성을 증가시켜 준다(Schouten, 1994). 특히 McMaster 모델은 30년 이상에 걸쳐 발전되어 온 가족기능 평가와 치료에 대한 포괄적인 모델로서, 다양한 장면에서 가족기능을 평가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접근일 뿐만 아니라(Ivan W. et al., 2000), 가족기능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 뛰어난 증거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수경, 1993; 김유숙 등, 2003).

McMaster 모델은 가족기능의 어느 한 영역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며, 가족을 복합적인 전체로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영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Ivan W. et al., 2000). McMaster 모델의 척도는 크게 일곱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문제해결차원, 2) 의사소통 차원, 3) 역할 차원, 4) 정서적 반응성 차원, 5) 정서적 관여 차원, 6) 행동 통제 차원, 7) 가족의 일반적 기능 차원이다(정수경, 1993; 김유숙 등, 2003).

본 연구에서 수정·보완하고자 선택한 도구는 McMaster 모델을 이론적 근간으로 한 가족사정척도(FAD)로서 정수경(1993)의 연구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을 제외시킨 수정단축형 34문항이고, 채점은 Likert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진다. 이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전체 67문항으로 문항 수를 늘리고, 채점도 리커트 5점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변화시켰으며, 이전의 34문항에서 부정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새로 수정된 문항에서는 긍정문과 부정문의 비율이 거의 반반씩 되도록 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족기능 평가 도구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수정·보완하면서 문항을 제작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제작된 문항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서, 평가도구를 새로 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하고 문항분석과 신뢰도 및 타당도를 추정하여 평가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김수연 (1998). 가족사정척도개발과 타당도 검증: 순환모델척도의 재구성.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수연, 김득성a (1997).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 김수연, 김득성b (1997).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에 관한 연구 2. 대한가정학회지. 35(6).
- 김연지, (1994). 가족체계 상호작용유형이 여중생의 불안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 김용준, 박세환 (1998). 감성지능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마케팅저널. 1(1).
- 김유숙, 전영주, 김수연 (2003). 가족평가 핸드북. 서울: 학지사.
- 김유숙 (1998).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김은영 (1990).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족기능 수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은영 (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응수, 김광석, 권혁중, 윤방부 (2000).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가족기능 평가. 대한가정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 김정은, 김정옥 (1998). 가족기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일반 고등학교 학생과 소년원생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 김주연 (1997). 가족기능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형준, 정광은, 권혁중, 강희철, 윤방부(2000).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족기능 평가. 가정학회지. 21(5).
- 김혜숙 (2003).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학지사.
- 권수자, 이길자 (1998). 가족정신건강 사정도구 개발. 정신간호학회지. 7(2).
- 노영주, 서동인, 원효종 역 (2003).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응집성과 변화-. 도서출판: 하우.
- 박주희, 이은혜 (2002).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 변창진, 최진승, 문수백 외 (2001). 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 서진숙 (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성태제 (2002).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신기명 (1990). 학습된 무력감 진단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어은주,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13(1).
- 옥경희 역 (1995). 가족상담-상담을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방법-. 서울: 학지사.
- 양옥경 (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

- 장요섭, 조현구, 조경희, 김종성, 윤방부 (1994). FACES III를 이용한 주정주독 환자의 가족기능 연구. 가정의학회지.
- 장화정 (1998). 아동학대 평가 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전귀연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정수경 (1993). 정신분열증 환자의 질병기간에 따른 가족기능의 효과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9(11).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 최윤선, 조금주, 이병환, 이영미, 홍명호, (1997).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의 만성 질환자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 최지호, 신호철, 최현림, 김병성, 원장원 (2000).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개발. 가정의학회지. 21(8).
- 최지호, 신호철, 최현림, 김병성, 원장원 (2002).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가정의학회지. 23(3).
- 최희진, 유영주(1999). '가족기능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Tavitian, Lubiner, Green, Grebstein, Velicer의 가족기능도 척도(FFFS)에 기초하여-. 가정관리학회지. 17(1).
- 한국심리학회 (1998). 심리검사 제작 및 사용 지침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홍성호, 박옥기, 임종명, 박경준, 정종승 (1994). 여고생들의 가족기능도, 가족적응력 결속력 평가척도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 Bloom, B. L. (1985).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4, 225-239.
- Epstein, N. B., Baldwin, L. M., & Bishop, D. S. (1983).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2). 171-180
- Epstein, N. B., & Bishop, D. S. (1991). "Problem -centered systems therapy of the family." In A. S. Gurman & D. 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1, 444.
- Goldenberg, H., & Goldenberg, I. (1990). *Counseling Today's Families*.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57-87.
- Kluwer (2000). Marital quality. In R. Milardo & Duck, S. (Eds.), *Families as relationships*. NY: John Wiley & Sons.
- Harvey Skinner, Paul Steinhauer, & Gill Sitarenios (2000). Family Assessment Measure (FAM) and Process Model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Therapy, 22, 190–210.

Ivan W. Miller, Christine E. Ryan, Gabor I. Keitner, Duane S. Bishop, & Nathan B. Epstein (2000). The McMaster Approach to Families: theory, assessment, treatment and research. *Journal of Family Therapy*, 22, 168–189.

Schouten (1994). A scale in search of a construct: Comments on Gavin & Wambold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0, 53–60.

Sigafoos, A., Reiss, D., Rich, J., Douglas, E. (1985). Pragmatics in the Measurement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4, 189–210.

<Abstract>

Item Manufacture for Development of Family Assessment Device

Jeong, seong-ran

This study aims at item manufacture for development of family functioning assessment device. To achieve this purpose, the process of item manufacture is as follow: ① literature study, ② definition of family functioning, ③ planning of item manufacture, ④ item manufacture, ⑤ an expert examination of content validity.

It is necessary to assessment instruments at the base of theories in 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Especially, the McMaster Approach to families is a comprehensive model of family assessment and treatment. The McMaster Model of Family Functioning has evolved over a period of thirty years, it evaluated that provides to good framework in assessment and diagnostic of family functioning.

The McMaster Model does not focus on any one dimension as the foundation for conceptualizing family functioning. So many dimensions need to be assessed for a fuller understanding of such a complex entity as a family. Seven subscales of the McMaster Model is as follow: 1) problem-solving, 2) communication, 3) roles, 4) affective responsiveness, 5) affective involvement, 6) behaviour control, 7) general function.

The FAD(family assessment device) of the McMaster Model is consist of fifty-three items. A brief FAD is consist of thirty-four items, scoring is Likert-type scales of a 4-point(1: strongly agree ~ 4: strongly disagree). It supplemented sixty-seven items and scoring is Likert-type scales of a 5-point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in

this study, and revised items divided in two equal parts an affirmative sentence and a negative sentence.

In conclusion, a previous family assessment device selected and its items revised and supplemented in this study, so follow studies need to examination of manufactured items, make a preliminary inquiry, item analysis, and examination of reliability and validity.